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카타르

State of Qatar

2021년4월30일 | 책임조사역(G3) 류강걸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12천 km ² 	인구 2.8백만명 (2020°) 	정치체제 세습군주제 	대외정책 친서방 중립노선 
GDP 1,461억 달러 (2020°) 	1인당GDP 52,144 달러 (2020°) 	통화단위 카타르 리알 	환율(U\$기준) 3.64 (고정환율제) 

- 카타르는 걸프만 서안에 돌출한 반도 국가로서 남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 북서쪽으로 바레인에 인접한 인구 2.8백만 명, 국토 면적 12천 km²(한반도의 5%)에 불과한 소국이나, 세계 최대의 LNG 수출국이며 2020년 1인당 GDP가 52,144달러에 이르는 고소득 국가임.
- 2017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집트(이하 아랍 4개국)의 주도 하에 일부 이슬람권 국가들이 카타르의 친(親)이란 정책과 무슬림형제단에 대한 지원 등을 이유로 카타르와 단교한 바 있으나, 2021년 1월 제41회 걸프협력회의 정상회의에서 아랍 4개국과 카타르는 외교 정상화 협정을 체결하였음.
- 카타르는 세습군주제로 2013년 6월 즉위한 타미م 국왕의 통치하에 풍부한 사회복지 혜택 등을 제공하여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음.
- 중립·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추구하여 서방 국가들과 경제·안보 분야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2017년의 단교 사태 이후 이란 및 터키와 경제협력을 강화하였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74. 4. 18 수교 (북한과는 1993. 1. 11)

주요협정 경제·기술·무역협력협정('84), 문화협력협정('88), 투자보장협정('99), 항공협정('09), 이중과세방지협정('09), 군사협력협정('16)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8	2019	2020	주요품목
수출	525,978	357,290	339,097	자동차, 전력용기기,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수입	16,293,627	13,036,553	7,562,141	천연가스, 원유, 석유화학제품

해외직접투자 현황(2020년 말 누계) 92건, 74,676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제성장률	3.1	-1.5	1.2	0.8	-2.6
소비자물가상승률	2.7	0.4	0.3	-0.7	-2.7
재정수지/GDP	-4.8	-2.5	5.9	4.9	1.3

자료: IMF, EIU

코로나19로 인한 원자재 국제 수요 감소 및 가격 약세로 2020년 -2.6%의 마이너스 경제성장 추정

- 카타르는 세계 1위의 천연가스 수출국으로 천연가스 및 원유 등 에너지 산업이 2019년 기준 GDP의 34%를 차지하고 있음.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원자재 수요 감소 및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카타르 경제는 2020년 -2.6%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21년 경제성장률은 V자 반등 전망

- 카타르는 ①LNG 증산 프로젝트 본격화, ②외국인투자 개방 정책 추진 및 2021년 1월 인근국과의 외교 정상화로 인한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③2020년 12월부터 개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④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LNG 수요 증가 전망 등으로 2021년 플러스 경제성장 회복이 전망됨. IMF와 EIU는 카타르의 2021년 경제성장률을 2.4%, Fitch와 IHS는 각각 3.3% 및 3.5%로 전망하였음.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 및 봉쇄조치로 인한 경제활동 둔화로 디플레이션 기록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봉쇄조치(lockdown)로 경제 활동이 둔화되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7% 수준의 디플레이션을 기록하였음.
- 한편, EIU는 2021년 하반기 민간소비 증가로 카타르의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6%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2022년에는 부가가치세(VAT) 도입과 월드컵 개최와 관련한 특수 등으로 3%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회복을 전망하였음.

에너지 산업 부진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

- 천연가스 및 원유 등 에너지 산업 부문은 2019년 기준 카타르 재정수입의 약 79%를 책임지고 있음. 원자재 국제 수요 감소 및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2020년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21%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지출 부담에도 공공기관 통폐합, 인원 감축, 선별적인 프로젝트 투자 등을 단행한 결과 재정지출 역시 전년 대비 13% 가량 감소하여 2020년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20.12월 IMF는 카타르가 월드컵 관련 주요 프로젝트 투자를 2020년까지 대부분 마무리하여 2021년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8%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원자재 가격의 더딘 회복, 법인세 수입 감소 등으로 재정수입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1년 GDP 대비 -6% 수준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경 상 수 지	-8,270	6,426	16,652	4,260	-3,713
경상수지/GDP	-5.5	4.0	9.1	2.4	-2.6
상 품 수 지	25,375	36,733	50,981	41,581	27,583
상 품 수 출	57,309	67,498	84,288	72,935	53,418
상 품 수 입	31,934	30,766	33,307	31,354	25,835
외 환 보 유 액	30,169	13,176	28,538	37,066	36,836
총 외 채	192,990	166,258	194,478	231,089	238,413
총외채잔액/GDP	127.2	103.2	106.1	131.4	163.2
D.S.R.	11.1	10.0	9.4	10.7	11.0

자료: IMF, EIU

2020년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

- 카타르 중앙은행(QCB)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카타르는 천연가스 및 원유 부문이 총수출의 86%(천연가스 62%, 원유 24%)를 차지하는 등 원자재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편임.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원자재 수요 감소 및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상품수출이 전년 대비 -27% 감소하며 2020년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카타르는 과거 원자재 국제가격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한 2017~19년 상품수지가 개선되며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바 있는 등 경상수지가 원자재 국제가격에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음.

국제유가 추이(브렌트유 기준)



자료: 한국석유공사

천연가스 가격 추이



자료: World Bank, 일본 LNG 수입가격 기준

외채상환능력

2020년에도 비교적 양호한 외채상환능력 유지

- OECD 자료 기준 카타르의 외채 규모는 전년대비 3.2% 증가한 2,384억 달러 수준이나,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한 원자재 국제 수요 감소 및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GDP가 크게 감소(전년대비 -17%)하며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131.4%에서 163.2%로 크게 상승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말 기준 외채의 약 1.4배 규모인 3,300억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를 보유하고 있고,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양호한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2020년 상반기 중 걸프 국가 최초로 10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외채상환능력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Moody's : Aa3('18.7월), Fitch : AA-('18.6월)

- 2020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액의 6.2개월분이고, D.S.R.도 11.0%로 추정되는 등 단기외채 상환능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구조적취약성

에너지 산업에 대한 높은 경제 의존도로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 등에 취약

- 카타르는 2019년 기준 천연가스 및 원유의 비중이 GDP의 34%, 재정수입의 79%, 총수출의 86%를 차지하는 등 원자재 국제가격 및 글로벌 경기 변동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
- 2000~15년까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던 카타르는 천연가스 가격(일본 LNG 수입가격 기준 1MMBtu당 2014년 15.8달러 → 2016년 7.37달러) 및 국제유가(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2014년 98.9달러 → 2016년 44.0달러)가 크게 하락한 2016년에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바 있음.
- 이후 2017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회복했고, 2018년에도 원자재 가격의 추가 상승에 힘입어 큰 폭(GDP 대비 9.1%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카타르는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임.

성장잠재력

세계 1위 천연가스 수출국이자 GCC 국가 중 재정균형 유가가 가장 낮은 자원 부국

- 카타르는 세계 1위의 천연가스 수출국이자 확인매장량 기준 세계 3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임.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0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카타르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전세계 매장량의 12.4% 수준으로, 이는 2019년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138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임. 또한, 세계 14위 원유 확인매장량 등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자원 부국임.
- IMF에 따르면 카타르의 2021년 재정균형 유가*는 배럴당 38.1달러로, 이는 GCC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임.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60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최근의 국제유가 추이,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1년 원유 수요 증가 전망 등은 카타르의 경제 회복 및 재정수지 개선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원유를 수출하는 산유국 정부가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유가 수준

※ 2021년 주요 GCC 국가 재정균형 유가(달러/배럴) : 사우디아라비아 67.9, 아랍에미리트 66.5, 쿠웨이트 65.7, 바레인 83.4, 오만 109.5

성장잠재력

대규모 자원 개발 본격화, 인근국과의 외교 정상화 등으로 국가 경쟁력 회복 전망

- 카타르는 세계 최대 단일 가스전인 북부가스전(North Field) 액화천연가스(LNG) 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 프로젝트 완료시 현재 대비 약 64% 증산한 126MTPA*의 천연가스가 생산될 예정으로 동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할 것으로 전망됨.
* Million Tonnes Per Annum의 약자로 연간 생산량을 의미
- 카타르는 클린 에너지 개발을 통해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에너지 자원 선진국 입지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카타르는 2021년 1월 인근국과의 외교 정상화에 따른 점진적인 교역 재개로 경기 회복이 기대되며, Fitch는 금번 외교 정상화를 통해 국경 간 이동이 다시금 자유로워지면서 카타르의 관광 및 부동산 시장 성장, 민간 소비 증가 등 비에너지 부문의 성장을 전망함.
- 아울러, Moody's는 카타르가 FIFA 월드컵 개최(2022년 예정)를 앞둔 상황에서 최근의 외교 정상화로 월드컵의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함.

글로벌경쟁력지수는 중동·북아프리카 국가들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

-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2019년 카타르의 글로벌경쟁력지수 순위는 전년 대비 1계단 상승한 29위(총 141개국 대상)로, 이는 중동·북아프리카 국가들 중 이스라엘(20위), 아랍에미리트(25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임.
※ GCC 글로벌경쟁력지수(순위, 등락폭) : 아랍에미리트(25위, ↑2), 사우디아라비아(36위, ↑3), 바레인(45위, ↑5), 쿠웨이트(46위, ↑8), 오만(53위, ↓6)
- 세부적으로는 ICT 기술 채택(8위)과 상품 시장의 효율성(13위), 재정 시스템(22위) 분야 등에서 강점을 나타냈고, 거시경제 안정성(40위), 인적 자원의 기술 수준(40위) 등에 대한 분야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로 남아 있음.
- 카타르는 2018년 5G 상용망 구축을 발표한 중동 지역 최초의 5G 도입국으로 성인 인구 중 인터넷 사용자 비중이 99.7%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휴대전화 보급률 142% 등 ICT 분야에서 특히 강점을 나타내고 있음.

정책성과

외국인 투자법(FDI Law) 개정 및 인근국과의 외교 정상화 등 투자 환경 개선에 따른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전망

- 카타르 정부는 2019년 외국인 투자법 개정으로 전 산업 분야에 최대 100%의 외국인 지분 투자를 허용하고, 2020년 10월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자에게 거주허가 및 영주권 혜택을 부여하는 기준을 발표함.
- 100% 외국인투자가 가능한 카타르경제자유구역(QFZA), 카타르과학기술단지(QSTP) 등을 운영 중으로 제조업, 석유화학, 첨단기술 분야를 중점적으로 유치하며 산업다각화를 꾀하고 있음. 아울러 73만 리얄(2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 투자자와 가족에 대해 거주허가를 부여하고, 365만 리얄(100만 달러) 이상 투자자에게 의료, 교육 등을 포함한 영주권 혜택을 부여하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외국인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있음.
- 아울러, 2021년 1월 카타르와 인근국들 간의 외교 정상화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는 카타르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더욱 상승시킴.
- 카타르는 2017년 단교 사태 여파로 외국인투자가 감소하여 2018~19년 GCC 국가 중 유일하게 외국인 투자 유입 규모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음.

주요 GCC 국가 FDI 유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카타르	1,071	774	986	-2,186	-2,813
사우디아라비아	8,141	7,453	1,419	4,247	4,562
아랍에미리트	8,551	9,605	10,354	10,385	13,787
쿠웨이트	311	419	348	204	104

자료: UNCTAD

단교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삼음

- 카타르가 이란 및 무슬림형제단을 옹호하고 테러단체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집트(이하 아랍 4개국)의 주도 하에 일부 이슬람권 국가들이 카타르와의 단교를 선언했으며, 이로 인해 카타르는 식료품 및 산업 기자재 수입에 차질을 입는 등 경제 위기를 겪음.
- 단교 직전인 2016년 기준 단교를 주도한 아랍 4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카타르 전체 수입의 15%를 차지했고, 식량 의존도는 30% 수준이었으며, 유제품의 54%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입하는 등 주변 국가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았음.
- 그럼에도 카타르 정부는 단교국들의 국교 복원을 위한 선결조건(이란과의 교류 축소, 알자지라 방송국 폐쇄 등) 수용을 거부하고, 미국, 중국, 터키, 오만 등으로의 수입선 다변화, 자국 상업항을 통한 직수입 확대, 식량 자급 정책을 통한 식품 수입의존도 축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됨.

정책성과

- 정부는 국가식량안보전략(National Food Security Strategy 2018~2023)을 수립하고 야채류 위주의 농산물 자급률을 2023년까지 70% 수준(2019년 28%)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며, 그 결과 단교 이전 24% 수준에 머물렀던 낙농 및 유제품 분야의 자급률은 현재 100% 수준을 달성함.
- 또한, 단교 사태 이후 국내 공급 기반 구축 및 경제 다각화를 위해 통상산업부(MoCI) 주도로 제조업 전략(Manufacturing Strategy)을 적극 추진하여 2017~18년 제조업 부문이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음.

카타르 제조업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GDP 규모	14,420	12,861	14,501	17,612	15,787
(증감률)	(-31%)	(-11%)	(+13%)	(+22%)	(-10%)
가동 공장 수	683	707	756	795	862

자료: 카타르중앙은행(QCB), KOTRA

정책 효율성(Government Effectiveness) 지수는 글로벌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

- World Bank는 공공·공무원 서비스, 정책 수립과 이행 및 이러한 자질을 높이거나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대한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14개 국가에 대해 정책 효율성 지수를 표준 정규분포[-2.5(Bad)~2.5(Good)] 형태로 매년 산출하고 있음. 카타르는 2017년 0.7점, 2018년 0.6점, 2019년 0.7점을 부여받아 GCC 국가들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자 글로벌 평균을 상회하는 정책 효율성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GCC 국가(2019년 기준) : 아랍에미리트 1.4, 사우디아라비아·바레인·오만 0.3, 쿠웨이트 0.0점

정치안정

타밈(Tamim) 국왕의 통치 하에 정치적 안정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카타르는 세습군주제 국가로, 2013년 6월 즉위한 타밈 국왕(1980년생)이 통치하고 있음. 국왕은 국가 원수로서 행정부를 관할하고, 모든 법령의 비준 및 공포권을 갖고 있으며,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각료 및 자문위원을 임명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 2003년 통과된 영구헌법에 따라 3권분립 원칙을 도입하여 국왕의 입법권을 약화시키고 별도의 입법 기관인 자문위원회(4년 임기의 45명 위원으로 구성)를 설치하였으나, 2005년 예정됐던 최초의 자문위원회 선거*가 선거구 미확정, 부족 간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연기되고 있음.
 - * 영구헌법에 따라 자문위원회 위원 중 15명은 국왕이 임명하고, 30명은 직접·보통선거로 선출
- 아울러, IHS는 국왕이 단교 사태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점, 조직화된 야권(opposition group)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정치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함.

사회안정

풍부한 지하자원을 통해 쌓은 부(富)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며 사회적 안정 유지

- IMF에 따르면 카타르의 2020년 구매력평가(PPP) 기준 1인당 GDP*는 93,508달러로, 이는 역대 1위 및 세계 4위에 해당하는 수준임. 또한, 풍부한 지하자원을 통해 쌓은 부(富)를 바탕으로 개인소득세 면세, 무상교육 및 무상주택 제공 등 풍부한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사회적으로 매우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 PPP 기준 1인당 GDP는 나라마다 다른 물가나 환율 수준을 반영해 실제 국민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지표임. 세계 1위는 룩셈부르크(118,002달러), 2위는 싱가포르(97,057달러)이며 한국은 27위(44,621달러)임
- 호주 경제평화연구소(IEP)의 2020년 세계평화지수에서 카타르는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 내 최상위권(1위) 수준의 평화지수를 기록함(163개국 중 27위).

2020년 MENA 세계평화지수

Middle East & North Africa

Regional Rank	Country	Overall Score	Score change	Overall Rank
1	Qatar	1.616	-0.046	27
2	Kuwait	1.723	-0.048	39
3	United Arab Emirates	1.752	-0.042	41
4	Oman	1.941	-0.012	68
5	Jordan	1.958	-0.027	72
6	Morocco	2.057	0.005	83
7	Tunisia	2.09	0.009	92
8	Bahrain	2.209	-0.111	110
9	Algeria	2.287	0.002	117
10	Saudi Arabia	2.443	-0.021	128
11	Egypt	2.481	0.052	130
12	Iran	2.672	0.137	142
13	Palestine	2.699	0.052	143
14	Israel	2.775	-0.004	145
15	Lebanon	2.828	-0.054	146
16	Sudan	3.043	0.1	153
17	Libya	3.258	-0.011	157
18	Yemen	3.411	0.051	159
19	Iraq	3.487	0.119	161
20	Syria	3.539	-0.023	162
REGIONAL AVERAGE		2.513	0.006	

자료: 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

(1 : 가장 평화로움, 5 : 가장 위태로움)

사회안정

2020년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전년과 동일한 30위 기록

- 2020년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 보고서에서 카타르는 63점(100점 만점)으로 조사 대상 180개국 중 30위를 기록하며 전년과 동일한 순위를 유지하였음. 이는 GCC 국가 중 상위권(2위)에 해당하는 수준임.

※ GCC 국가 부패인식지수 : 아랍에미리트(71점, 21위), 오만(54점, 49위), 사우디아라비아(53점, 52위), 쿠웨이트·바레인(42점, 78위)

Moody's는 카타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수준을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

- Moody's*는 ESG 요소가 카타르의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 있다고 보고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하였음.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2021.1월 Moody's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1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8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5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20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1등급 국가는 없으며 42개국이 2·3등급, 65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경제·재정 의존도가 높아 탈탄소 정책과 관련한 환경 위험에 부정적으로 노출되어 있음. 다만, 낮은 수준의 원자재 생산 비용과 상대적으로 클린 에너지인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점은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요소임. 그 외에, 카타르는 극심한 물 부족 국가로 경제성장, 인구 증가 등으로 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부담요인으로 지적하며 환경(Environmental) 영향을 부정적(4등급)으로 평가함.
- **(사회)** 최근의 높은 인구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총 인구 대비 낮은 수준의 자국민 비중(약 10% 수준)은 가까운 미래에 노동 시장과 관련한 정부 부담의 상승 가능성을 제한하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공공 서비스 제공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Social) 영향은 중립적(2등급)으로 평가함.
- **(지배구조)** 재정정책 등 거시경제정책 효과와 강력한 부패 통제, 법치에 의해 뒷받침되는 입법 및 집행 기구의 질적 개선을 반영하여 카타르의 지배구조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1등급)으로 평가함.

국제관계

2021년 1월 아랍 4개국과 외교 정상화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이란-터키와 긴밀한 관계를 지속할 전망

- 2017년 카타르가 이란 및 무슬림형제단을 옹호하고 테러단체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집트(이하 아랍 4개국)의 주도 하에 일부 이슬람권 국가들이 카타르와 단교한 바 있으나, 2021년 1월 제41회 걸프협력회의 정상회의에서 아랍 4개국과 카타르는 외교 정상화 협정을 체결함.
- 동 협정 체결로 교역 개방 등 상호 간 경제협력 재개가 기대되나, 카타르는 협정 체결 후에도 이란-터키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아랍 4개국이 외교 정상화를 위해 카타르에 요구한 13가지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상호 간의 장기적인 외교관계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임.
- ※ 이란과 터키는 카타르가 인근국과의 단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카타르를 적극 지원하며 카타르의 주요 우방국으로 부상함

아랍 4개국의 13가지 요구조건

① 이란과의 교류 축소	⑥ 알자지라 방송국 폐쇄	⑪ Arabi21 등 카타르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언론 매체 폐쇄
② 카타르 내 터키 군사기지 폐쇄	⑦ 주권국에 대한 내정 간섭 중단	
③ 무슬림형제단, 알카에다 등 테러단체 지원 중단	⑧ 카타르로 인한 피해 보상	⑫ 10일 이내로 요구 사항에 대한 동의
④ 테러리스트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⑨ 주변 아랍국가와 일치하는 정책 수립	⑬ 향후 약 10년간 상기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 감사 수검
⑤ 테러리스트에 대한 신병 인도	⑩ 4개국 내 야권 측과의 접촉 중단	

자료: Fitch

미국 등 서방국과 우호관계를 지속하는 가운데 중국과도 교류 강화

- 미국은 2019년 기준 카타르의 1위 수입상대국(54억 달러)이자 5위 교역상대국(64억 달러)으로 무역/투자·항공·군사·교육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하고 있음.
- 2003년 중동 최대의 미 중부사령부 기지를 유지한 이후 미군 1만 명 및 국제연합군이 카타르에 주둔 중이며, 2020년 제3회 전략대화(3rd US-Qatar Strategic Dialogue)를 통해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분야의 협력을 강화함.
- 2020년 말 미국 화이자(Pfizer) 및 모더나(Moderna)와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의료 분야에서 적극 협력 중이며, 2021년을 카타르-미국 문화 교류의 해로 선정하는 등 양국간 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국제관계

- 중국은 2019년 기준 카타르의 2위 수입상대국(35억 달러)이자 2위 교역상대국(125억 달러)으로 무역/투자·건설·IT(5G) 분야에서 카타르와 활발히 협력하고 있음.
- 카타르의 2위 통신사 보다폰(Vodafone Qatar)은 5G 통신망 구축과 관련하여 중국 화웨이와 협력하고 있으며, 카타르 내 메트로 건설 프로젝트,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건설 프로젝트, 태양광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 등 에너지, 건설 분야에서도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카타르의 주요 교역상대국(2019년 기준)

(단위 : 억 달러)

순위	수입상대국	금액(비중)	수출상대국	금액(비중)	총 교역규모 기준	금액(비중)
1	미국	54 (19%)	일본	136 (19%)	일본	145 (14%)
2	중국	35 (12%)	한국	114 (16%)	중국	125 (12%)
3	독일	21 (7%)	중국	90 (12%)	한국	117 (11%)
4	영국	19 (7%)	인도	89 (12%)	인도	104 (10%)
5	인도	15 (5%)	싱가폴	55 (8%)	미국	64 (6%)

자료: PSA(Planning & Statistics Authority)

외채상환태도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편

- 2020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지원잔액 23,097백만 달러(단기 519백만 달러, 중장기 22,578백만 달러) 중 정치적 리스크에 의한 연체금액은 40백만 달러 수준이며, 이는 전체 지원잔액의 0.2% 수준으로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편임.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3등급(2021.01)	3등급(2020.01)
Moody's	Aa3 (2018.07)	Aa3 (2017.07)
Fitch	AA- (2018.06)	AA- (2017.08)

OECD 및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투자적격 등급 유지

- OECD와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카타르의 높은 1인당 GDP 등 우수한 경제력 및 이를 지탱해 주는 풍부한 천연가스 및 원유 매장량 등을 강점으로 모두 종전 평가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다만, 원자재 국제가격 및 수요가 낮은 수준을 지속하여 이로 인해 재정여력 저하와 외채대응능력 감소가 발생할 경우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함.

- 카타르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자원 부국으로 2019년 기준 천연가스 및 원유의 비중이 GDP의 34%, 재정수입의 79%, 총수출의 86%를 차지하는 등 원자재에 대한 경제·재정 의존도가 높은 편임.
-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과 수요 감소, 봉쇄조치로 인한 경제활동 둔화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 및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 합리화 노력 등으로 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한편, 2021년에는 LNG 증산 프로젝트 본격화,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원자재 수요 증가 기대감, 백신 보급에 따른 경제활동 회복 등으로 플러스 성장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수출 감소에 기인하여 2020년 외채상환능력 지표는 전년 대비 저하되었으나 막대한 국부펀드와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양호한 신용등급에 기반한 자금 조달능력을 고려하면 외채상환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타밈 국왕의 막강한 권한 아래 단교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등 정치 안정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다양한 사회복지 혜택 제공 등으로 사회 안정 역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상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카타르의 신용등급을 종전과 동일한 B2로 유지하고자 함.